지역 메아리

부안군, 참뽕 오디 수확 개시

'검은색 보석'으로 일컬어지는 부안 대표 농산물 오디가 동진면 봉황리 예궁원 시설하우스에서 본격적인 수확을 맞았다.

이는 노지재배 오디보다 20일 이상 빠른 수확으로 예궁원 대표 홍석렬씨는 2014년부터 1653㎡ 연동하우스에서 무가온 친환경 참뽕오디를 재배하고 있는데 매년 2톤의 오디를 수확하여 주로 전자상거래와 직거래를 통해 24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에 권익현 부안군수는 14일 예궁원 현장을 방문하여 수확을 도우며, 전국 최고품질의 참뽕오디 명성에 걸맞는 오디가 생산되고 있어 매출상승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또 시설오디 뿐만 아니라 노지 오디도 본격적인 수확을 앞두고 있으므로 부안군이 앞장서 대중매체와 홈쇼핑을 통해 오디의 건강기능성을 부각시키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오디판매 촉진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현장에서 함께 땀을 흘리며 수확에 참여한 농가들은 그동안 부안군이 친환경 비가림하우스 지원, GAP 인증 지원, 오디 냉동창고 지원, 친환경오디 생산 시설 ICT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오디농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농가 스스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또한 금년부터 적용된 PLS의 철저한 이행으로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야 함을 강조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아름다운 가게와 나눔 바자회 '아름다운 하루' 열어

정읍시가 오는 22일 시청 잔디광장에서 나눔 바자회인 '아름다운 하루'를 연다.

바자회는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 진행된다. 물건의 재사용과 재순환을 도모해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인 세상을 만들고 시민과 소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 2016년 이후 2년 만에 개최되는 행사는 시청 잔디광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현재까지 의류와 자전거, 유모차, 주방용품 등 약 3천 점이 기부됐다.

기부 물품 모집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약 5천 점이 넘는 물품이 기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6년에 열린 행사에서는 1천573점의 물품이 기증돼, 약 200만원 정도의 수익금이 저소득층에게 지원됐다. 이번 행사에는 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자연보호협의회, (사)참좋은사람들사랑나눔공동체 등이 참여한다.

바자회 수익금은 지역 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제52회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가 동학농민군의 첫 전승지인 정읍 황토현 전적 일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혁명의 성지 정읍 위상 확인

국가기념일 제정 이후 첫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 성료

지난 2월 19일 황토현전승일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가운데 '제52회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가 동학농민군의 첫 전승지인 정읍 황토현 전적 일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지난 10일 전야제로 시작된 행사는 12일까지 정읍 황토현 전적(黃土峴 戰蹟, 사적 제295호)에 마련된 야외특설무대와 일원에서 펼쳐졌다.

올해로 52회째를 맞은 기념제는 정읍시가 주최하고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이사장 김영진)가 주관했다.

올해 행사 주제는 '통일(統一)로 직향(直向)할 사(事)'다. "황토현과 집강소를 넘어 통일로 직향하기 위해 힘차게 날개짓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올해 기념제는 1894년 보국안민과 제폭구민의 기치로 일어났던 동학농민혁명이 3·1운동과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그리고 2017년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는 혁명사(史)의 과정을 느낄 수 있는 교육 공간으로 운영됐다는 평가다.

기념제는 동학농민혁명 UCC 수상작 시상을 시작으로 황토현에서 울리는 511인의 함성, 제52회 기념공연, 동학농민혁명 대상 시상, 특별기획 갑오백성 공연, 전국역사퀴즈대회, 무명동학농민군위령제, 구민사 위패봉안례 등이 진행됐다. 전야행사로는 홍진영, 송대관, 장윤정 등 인기가수들이 출동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을 기념하는 축하 공연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시와 계승사업회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만큼 그 어느 해 보다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했다"며 "기념제를 통해 정읍이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임을 재확인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한층 더 계승·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진섭 시장은 "이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공원 조성사업 마무리와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 혁명 선양 사업추진도 가속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국·도비 예산 확보, 절실함과 노력 중요"

권익현 부안군수, 주요 간부회의서 강조… 적극 활동 주문

권익현 부안군수가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절실함과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권익현 군수는 13일 열린 주요 간부회의에서 "국·도비 예산은 얼마나 절실한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다라서 따올 수 있는 것"이라며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사업 및 지방교부세 통계자료 정비 등 누락되는 사업이 없도록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부처 동향 파악 및 방문설명 등 적극적으로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펼쳐 달라"며 "각 부서 소관 공모사업을 철저히 파악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권익현 군수는 "제7회 부안마실축제가 예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군민과 관광객들의 큰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번 기회를 잘 살려 전국 대표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사내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잘된 점, 미흡한 점, 개선할 점 등을 백서로 제작해 축제의 경험과 노하우를 함께 공유해 달라"고 밝혔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의 역사와 문화, 미래 등을 전시·체험할 수 있는 국립새만금박물관 건립을 위해 올해를 소장품 확보 원년으로 삼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증·기탁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부안에 건립되는 국립새만금박물관이 특화된 박물관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자"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권익현 군수는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된 만큼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손돕기를 진행해 달라"며 "야외작업시 야생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농번기 야생 진드시 예방수칙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언급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과학에 대한 호기심 쑥쑥'

정읍창의과학축전, 18일부터 천변 어린이축구장서 열려

정읍창의과학축전이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국민과 함께 미래를 보다'라는 주제로 정읍천변 어린이축구장에서 열린다.

올해 14회째를 맞는 창의과학축전은 정읍시와 정읍교육지원청,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흡입안정성연구본부가 주최하고 샘고을생활과학탐구회가 주관한다.

축제에서는 따스한 봄,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손으로 직접 만들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총 4개 테마로 구성돼 47개 체험 부스에서 운영된다.

4개 테마는 △드론 레이싱 장애물 통과·신나는 증강현실(AR·VR)체험 등 4차 산업체험 △국책연구소 체험 △섬유 탈취제·석고 방향제 등을 만들어 보는 STEAM 과학체험 △손 소독제·머그컵 만들기 등 생활과학체험이다.

이 외에도 드론 농구대회가 초등부와 중고등부로 나눠 열린다. 관심 있는 청소년은 사전접수와 현장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미래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과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상상력과 창의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과학축전 행사를 통해 과학에 대한 꿈을 키우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저녹스 보일러로 두 마리 토끼 잡으세요"

정읍시, 1가구당 16만원씩 지원

정읍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 5월부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녹스 보일러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NOx)이 적게 배출되는 저녹스 버너를 장착해 연소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일반 보일러에 비해 질소산화물이 79%가량 저감 배출되는 반면에 열효율은 91% 이상(일반 보일러 80~85%)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 보일러에 비교해 가격이 20만원가량 비싼 것이 단점인데 이 사업은 주민들이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저녹스 보일러로 바꿀 수 있도록 교체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정읍시는 6월까지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고자 하는 100가구에 대해 가구 당 16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급 신청은 주택의 소유주뿐만 아니라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도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5월 20일~24일까지며, 정읍시청 환경과(본관 3층)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유진섭 시장은 "노후 된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면 대기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연료 절감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지역주민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서 - 고창여중 협동 교통안전 홍보영상 제작

고창경찰서(서장 박정환)에서는 지역 유치원·어린이집, 초·중학교 학생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교통안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여 지역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영상을 촬영·제작하고 있다.

이번 교통안전 홍보영상은 고창여자중학교 학생들과 '횡단보도 보행 시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을 주제로 제작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원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차vs사람 교통사고 중 스몸비(스마트폰+좀비 합성어)의 교통사고 비율이 60%가 넘는다고 한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인 학생들이 직접 참여한 영상제작으로 눈높이를 맞추고 이해를 돕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제작한 교통안전 홍보영상은 페이스북·밴드 등 SNS 홍보 및 축제·관공서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창경찰서(서장 박정환)는 "보행자 보호 및 사고예방 홍보활동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눈높이에 맞는 교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사고예방 홍보를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감하는 교통문화 정착에 집중할 것이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